

# 목포 관광객 800만명 시대

쭈쭈는 분수 기네스 선정·해양축제 대표축제 뽐혀 관광도시 ‘우뚛’

목포시가 ‘국제적 해양·관광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가운데 연간 관광객 8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최초 바다 분수인 ‘쭈쭈는 바다 분수’가 한국 기네스에 선정된데 이어 목포해양문화축제가 대회 개최 8년만에 ‘2013년 문화부 대표 축제’에 뽑혔고, 전남도 관광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또 관광기획과 고영배 축제 담당이 국무총리 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문

화부 장관상(김선희, 차명희)과 기관 표창 3개 등 모두 11개의 각종 상을 휩쓸었다.

이 같은 잇단 쾌거는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기획과와 관광사업과를 분리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병행해 행정의 결집력과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정종득 시장은 “쭈쭈는 바다 분수’가 한국관광 기네스로 선정된데 이어 해양문화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당당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

‘멋과 낭만, 꿈이 있는 도시 목포’의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고영배 담당은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지역 27개 시·군·구 축제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성공하는 지역축제 아카데미’에 참가한 것이 큰 보탬이 됐다”며 “올해 80만명이 해양문화 축제를 찾았는데 내년에는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초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펼쳐 8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 100여개의 여행사와 함께 다양한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광 홍보·안내 체계 보강을 위해 관광전용 블로그 ‘해맑은 목포’ 개설 등 실효성이 높은 홍보 전략을 구사해 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완도 해조류박람회

### 3월 주전시관 착공

“2014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주전시관(조감도)인 미래관 건설 사업이 3월부터 시작된다.

미래관(수산생명산업지원센터)은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완도항 해변공원에 들어선다.

규모는 아의 전망탑을 포함한 4층 규모로 1249㎡다. 연말 완공 예정인 미래관은 박람회 기간 테마관으로 운영한다.

행사가 끝나면 지역특산물 판매와 수출입 상담 등을 위한 기반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미래관이 완공되면 완도타워와 함께 명실상부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미래관, 생태관, 식품관, 산업관, 기업관의 5개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 목포대서 중국어 문화캠프

무안교육지원청이 7일부터 11일까지 목포대에서 중국어 문화캠프를 연다.

대상은 관내 초(20명)·중(15명)·고교(10명)생으로 중국 청화대 우수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탁연수 방식이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HSK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8명의 학생에게는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7박 18일의 어학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초등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선발 시험을 거쳐 뽑힌 성적 우수자 24명(초 16명, 중 8명)에겐 중국 현지 언어 문화체험 활동이 주어진다.

/김민준기자 jun@

## 여객선 운항상황 실시간 본다

### 목포 터미널 영상정보시스템 설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서남해의 관문인 목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최신 영상 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대합실 전면에 설치해 이용객이 여객선 운항상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반여객선 개찰구에 뱅·난방 부스를 설치, 운영 중이다. 신안 흥도 방면 개찰구 부근에 258㎡, 200명 수용 규모의 뱅·난방 부스를 설치했다.

그동안 목포 여객터미널은 대합실 층고가 높아 겨울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면서도 난방효과가 떨어져 이용객들이 추위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목포항만청 박성복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여객선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여객선터미널 등 여객수송시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새 얼굴

## “국도 확포장 등 현안 적극 추진”

### 최성현 진도군 부군수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보배섬 진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최성현(58) 진도군 부군수는 “군민의 뜻을 결여히 받들어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화합과 조직 결속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진도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진도항 건설사업 ▲중국 장자도 어업집단과 체결중인

해 삼·전 북 양식 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도 18호 선 확·포장 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출신인 최 부군수는 1974년 공직에 입문해 순천 승주읍장, 전남도 해양항만과장 등 거쳤다. 부인 정혜선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새해 새 설계

## 안병호 함평군수

# “돈 버는 ‘나비축제’ 콘텐츠 마련”



## 장애인 임대주택 건립

## 단호박·부추 특화품목

## 해보단지 하반기 가동

“2013년을 ‘풍요로운 함평 행복의 해’로 정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2013년 중점시책을 ▲군민 제일의 참모사 행정 실천 ▲몸과 마음이 따스한 행복의 복지함평 구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고품질 친환경 농·축·수산업 육성 ▲다양한 산업인프라 구축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녹색산업 구축으로 정했다.

이들 중점시책 관련 사업을 올해 예산 2402억1000만원에 반영했으며, 이는 지난해 2229억7400만원보다 172억36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임대주택 건립, 무지개마을 조성,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사업비 2283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학교면 월산리에 무지개마을을 조성해 장애인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함평읍 내교리에 함평천지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석성 보건진료소 증축 및 해보 보건지소 개보수 등 시설 확충과 기능 개선으로 건강한 함평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권역별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사업, 나산 소재지 권역사업,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농촌의 모델로 대내외에 알려나갈 예정이다.

안 군수는 이와 함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순환자원화 시설과 연계하고 농업과 축산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복합영농 실현에도 주력하겠다”며 “단호박과 부추, 고사리 등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무화과 재배 등 품목의 다변화를 꾀해 개방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였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조성에 착수한 해보농공단지 조성비로 118억8900만원을 마련했다.

상반기 내 해보농공단지 공사를 완료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동함평일반산단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해 ‘찾아오는 함평’을 만들겠다는 것이 안 군수의 생각이다.

안 군수는 또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 최우선에 두기 위해 올하는 인터넷 토론포럼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민생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1담당별 1수상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나비축제를 세계축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로 마련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읍면별 특산물 판매부스 개설, 축제쿠폰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축제를 ‘돈 버는 축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안병호 군수는 “계사년 새해는 우리 함평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변함없이 군민이 중심이 되는 함평,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변화와 도전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군민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 목포~홍도 쾌속선 뱃삿 50% 인하

## ‘가뭇바 할 관광지’ 선정 기념

목포~신안간 흑산면 홍도를 운항하는 쾌속선 뱃삿이 다음달 말까지 50% 내렸다.

홍도 유람선 요금도 똑같이 인하했다.

지나해 ‘한국인이 꼭 가뭇바 할 국내 관광지’ 1위 선정을 기념하고

인터넷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할인 이벤트다.

목포~홍도간 쾌속선 운항 선사인 ㈜동양고속해리와 ㈜남해고속은 다음달까지 4만2000원인 운임을 2만1000원(터미널 이용료 1500원 별도)으로 50% 인하했다.

기암괴석을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홍도유람선 승선 시에도 5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행사는 1인 1회다. 이벤트 참가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에서 회원정보를 출력해 선상에 제출하면 된다.

홍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한국인이 꼭 가뭇바 할 국내관광지 100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謹賀新年

새해에는 모든일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Black yak 목포저점 | 웰빙수진산  | (유)영진    | (유)솔마루   | 미즈아이병원 | 기독병원   | 한국병원   | 학교법인중앙병원 | 목포의료원  | 영산강IV지구5-1공구현장직원일동 | 영산강IV지구2-2공구현장직원일동 | 영산강III-1지구마산3공구현장직원일동 | 한라건설(주) | 대한건설(주) |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지부 | 주상그리아비치호텔 | 주행남자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 목포상공회의소 | 목포시의회  | 목포시장의직원일동 |
| 최보현            | 사장 박유진 | 대표이사 윤영진 | 대표이사 최진배 | 임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현장직원 일동            | 현장직원 일동            | 현장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임직원 일동    | 대표이사 황김유석 | 대표이사 최형식  | 조합장 최형식 | 회장 김호남 | 의장 임직원 일동 |